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경기도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이런저런 일로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둔황(敦煌)의 막고굴을 갔을 때마다 유난히 텅 빈 17호의 작은 굴에 한참을 멈춰 선다. 세계에서 현존한 규모가 가장 크고 완전한 불교문화의 보고로 다양한 부처상과 벽화로 천년에 걸친 생경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불사한 동굴이 1000여개에 달해 천불동(千佛洞)이라고도 하며 동굴마다 다양한 불상과 벽화를 만날 수 있다. 작품 특성이 많은 유실이 있지만 각종 부처, 보살, 천왕의 존상하나 불경에서 나오는 멋진 그림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장서 밀실이 발견된 17호굴은 장경동(藏經洞)이라 불렀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3미터 정도의 굴 안에 발굴 당시 경서와 문서, 자수, 회화와 부처존상을 그린 명주기, 탁본 등 5만 여점의 문물들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포함한 이른바 둔황 문서도 여기에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의 해

초(慧超:704-787)스님이 서역을 여행한 뒤 727년 무렵에 쓴 세계 최고 여행기 중 하나로 손꼽히며,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정치·문화·경제·풍습을 생생하게 담은 기록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지금껏 박지원의 '열하일기',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더불어 기록문학의 백미로 손꼽힌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인도를 천축이라 불렀다. 동서남북과 중앙으로 나는 오천축국을 727년, 즉 지금부터 1300여 년 전 무려 4년 동안 2만 킬로미터를 순례한 글이다. 다시 말해 오천축국으로 여행 갔던 기록이다. 천축국은 인도이며, 오천축은 인도가 넓기 때문에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지방으로 구분해 한꺼번에 부른 이름이다.

며칠 전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기획전에서 선보인 '왕오천축국전'을 보러갔다. 원래는 총 227행 5893자의 두루마리 형태지만 지금은 일부본만이 현존한다. 작은 유리상자의 희미한 조명 속에 펼쳐진 폭 42cm의 누런 종이 두루마리 앞에서 작은 전율을 느꼈다. 내 모습을 누군가 봤다면 낮이 나갔다고 했을지 모른다. 펼쳐면 358cm에 이르나 깔린 것은 겨우 60센티미터만 펼쳐진

나머지는 돌돌 말린 상태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전시를 협의하면서 합의한 것인데다가, 1천년이 넘는 종이 유물이라 상태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해초스님의 놀라운 기상과 현현하는 상상력의 표현이 130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분명 글씨 이상이고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1908년 3월 프랑스의 탐험가 펠리오가 둔황의 석굴을 지키던 왕원룡에게 구입하여 프랑스로 갔고, 이번에 세계 최초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나와 전시되고 있었다. 애초부터 앞뒤 부분이 떨어져나가 책이름과 저자를 알 수 없었으나, 펠리오가 당(唐)의 해립(惠琳)이 지은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라는 불경주석서로 알아냈다. 원래 이 책의 원본은 3권이었고 하나, 현존본은 사본(寫本)으로 전체 내용인지 요약본인지를 알 수가 없다. 내용은 중부 인도 갠지스 강 유역의 마가다국(Magadha:지금의 비하르) 기행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서북쪽으로 쿠시나गर(Kusinagara:지금의 카시아)로 갔는데, 이곳은 석가모니가 입멸(入滅)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다비장(荼毘場)과 열반사(涅槃寺)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해초와 함께 하는 서역 기행'을 부제로 한 이번 전시는 8세기 스님이 여행했던 길을 따라 파미르 고원 동쪽의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어떻게 해초스님이 남긴 이후 128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일반인 대상 공개도 세계 처음이라고 한다.

실크로드 관련 전시인 만큼 그밖에 관련유물 220여점이 빼곡하다. 8세기 해초스님이 걸었던 여정인 파미르 고원 동쪽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실크로드의 도시들'에서는 카라사르에서 출토된 황금대구가 인상적이다. 큰 용 한 마리와 작은 용 일곱 마리가 구름 위에서 노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2부 '실크로드의 삶과 문화'에서는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 서역 남로의 오아시스 도시들과 서역벽로, 천산북로 등에 살았던 이들의 삶과 문화가 소개된다. 3부 '둔황과 왕오천축국전'에서는 둔황의 석굴과 벽화의 위엄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둔황 석굴 모형 2점을 전시해 둔황 막고굴의 웅장하고 화려한 문화를 현장에서처럼 느낄 수 있게 한다. 나오던 걸음을 되돌려 아마도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를 작은 두루마리를 향한 눈길에 1300년의 세월을 녹였다.

사부대중 칼럼



인나현  
대진디자인고법과후교사

1998년, 서울 시내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처음으로 4개 학교에 개설됐다. 이 4개 학교 중 하나가 나의 모교이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머리가 많이 아픈 친구들이 학급당 두 명씩 있었다. 이 아픈 친구들은 '사랑의 교실'이라는 특수학급에 속해 있었다. 이 친구들은 일반적인 교과에서는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았지만, 수준별 수업을 할 때에는 특수학급인 '사랑의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았고, 나는 학급당 2명씩 있는 장애우 중 수진이라는 친구를 도와주는 '도우미' 봉사자를 자처했다.

'도우미' 활동은 그들과 친구가, 언니가 되어주고 때로는 선생님 역할도 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분야에 길 수가 없는 봉사활동이었다.

내 친구 수진이를 처음 만난 날은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수진이는 그때부터 나와 친구로 찍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친구 수진이는 경련성 장애, 일명 간질과 정신지체를 동반한 친구였다. 나는 처음에는 학급회장으로서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을 뿐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몰라 당황하기가 일쑤였다. 나는 말만 도우미였지 수진이와 거리를 느끼고 바보친구와 어울린다는 게 부끄럽다는 마음도 생겨 살살 피했었다. 그냥 학교에서 말 한마디 않고 옆에서 잠만 자는 수진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저 그러려니 했었다.

수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수학교도 아닌 인문계 일반고에서 나름대로의 고통과 진한 소외감을 느꼈으리라. 그렇게 서로 무덤덤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그 날은 수업 시작중이 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수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수진이가 울먹이며 교실에 들어왔다. 울먹이기보다는 화가

나고 화난 마음을 어디에 말할 곳이 없어 분하고 속상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나는 이때야말로 수진이와 친해지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고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아주고 이야기를 했다. 왜 그렇게 울면서 속상해하는지.

버스 안에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어린 중학생, 몇 명의 남학생들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봤었다. 위박에 자주 있는 일이고 혼자 맘으로 삭이며 참고 지나치기만 했던 수진이가 그날은 용기를 내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었다.

"까불지마." 이 어눌하고 더듬거리는 발음의 한마디. 수진이가 용기를 내서 소리 지른 의미였다. 그 말을 뱉은 후 수진이는 그 남학생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 어느 누구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수진이와 나는 그날 세상의 잔혹함을 알아 버렸다.

나는 수진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수진이를 대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서 수진이가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알아 볼 수 없는 글씨이지만 편지도 주고받았다. 많은 것을 함께 하면서 수진이는 나를 봉사자·도우미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해줬다. 나는 수진이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생겼다. 누군가를 돕는 봉사자 아니라 오히려 내가 수진이의 도움을 받고 있는 셈이 되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나는 대학에 진학을 하였고, 수진이는 첫출용품을 만드는 장애인 복지관에 취업을 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학생시절의 소중한 봉사활동의 경험은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라, 지켜봐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소외 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가 따뜻하게 대한다면 좀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아침을 시작한다.

고등학교 친구 수진이

社說

대토론회의 첫 번째 성적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의 첫 번째 마당이 끝났다.

발제자인 원담 스님을 비롯해 주경 스님 등 토론자들은 한국 불교의 '오늘'을 서로 다르게 진단했다. 그러면 서로 '가야할 방향' 만큼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총무위원장 자승 스님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밝힌 것과 같았다.

참석자들은 한국 불교가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대중과 함께 하는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그뿐이었다.

행사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인터넷 생중계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이나 해남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과의 화상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그다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발제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서 구체적인 핵심을 짚어나가기 어려워 보였다. 무엇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인지 너무 광범위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니 구체성이 떨어져 보였다.

중단이 주최하는 토론회라면 내부적인 아젠다부터 마련돼 있었어야 했다. 먼저 대안을 갖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첫 번째 토론회는 토론만 열어주고 발제자·토론자의 재량에 맡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말은 많이 나왔지만 정리가 안됐다. 지금까지 불교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

토론회가 포포먼스가 돼서는 안된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토론회의 평가는 수우미양가 중 '미'이다.

대토론회가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지려면 발제자·토론자들이 맥을 짚어 총괄살피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최 측이 더 도와야 한다. 그들을 도와야 토론회가 성공하고 한국 불교가 산다.

'ZEN'의 일탈

'Zen(젠)'은 일본의 불교학자인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1870~1966)가 선을 중심으로 한 불교를 서구에 알리면서 시작했다. '선(禪)'의 일본어 발음대로 'Zen'이라 표기했던 것.

서구에서 불교가 흥할수록 'Zen'의 네임밸류도 올라갔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뉴욕에서부터 가구, 인테리어, 식당에 'Zen'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뉴욕커플에게 'Zen'은 단순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뜻했다. 그들은 단순하고 심플한 것들을 모두 'Zen Style(젠 스타일)'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국에서는 더했다. 러브호텔에도 'Zen'이란 말이 쓰였다.

홍콩 예로영화 <육보단>이 3D영화로 제작되면서 <3D Sex and Zen>의 타이틀로 개봉된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네티즌들 가운데에는 "불자들이 나서서 'Zen'의 긍정적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Zen'이 친근하게 생활 속에 파고들어 대중화 있다는 이유이다.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Kimchi)'는 해외에서 점점 '기무치(Kimuchi)'로 알려지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새롭지 않다. 대구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의 말처럼 한국은 간혹선 수행 중주국이다. 이제 국제적으로 일본에 선점당한 '선(禪)'을 'Seon'으로 되찾을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팩스(02)737-0697

<b>편집국</b> 02)2004-8234-55 FAX (02)737-0698	<b>외사출 현물닷컴</b> <b>실시간 뉴스 토틀뉴스</b> <b>불교포탈 부디피아</b> <b>소평을 현물닷컴</b>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	--	---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지사안내**    충청지사 : (043)732-5560    부산지사 : (051)632-0064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공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적** : 사찰 전사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200평, 산 1만 5천평 포함
- 특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입상, 50여점 크리스탈개굴불, 천여점 희귀불상 전시(국내최대전시장), 외관벽 일체 크리스탈 장실 만다라 액자로 장식
- 연간 5만명 참배, 천도제 월 10건이상
- 전사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굴불은 주지스님이 10여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굴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 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 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분께도 황홀함이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TV방송 등 총 18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35억 가능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함 **성취권**을 입력하십시오.
- 연락처 : **054)249-1023**  
**휴. 010-4504-0174**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면 대 성공을 확신합니다.

## 사찰대출안내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 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도와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 대출이자는 1억원 대출시 월62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2 대출상환은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개인명의 뿐 아니라 단체명의 사찰과 중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무료 수강생 모집

"이는 것이 힘입니다, 기술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재력입니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 정만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립니다)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른즉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력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업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 바른정법.바른인연

부처님의 정법 (경전 및 조사어록)만을 고집하는 수행 남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터를 마련하여 대웅전(법당)을 건립하고자 하오니 불사에 동참할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재, 부적, 철학, 조류방생, 인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 등의 일체 기복을 사절하였으며, 시한부 암환자나 희귀병자, 신병등의 환자분들과 **인간 방생의 인연을 짓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타 종교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서울에서의 도량에서 소리 소문없이 정법의 기도로서 지난 십 수년간 책을 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분들이 병석에서 일어나 각자 새 삶을 얻어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현재는 천일기도 및 동안귀 백일기도중)

**불.법.승.정법.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대웅일등**  
주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화 : 055)633-6555